

최광혁's Macro Insight

# E BEST EDGE



Economist

최광혁

02. 3779-8448

kh.choi@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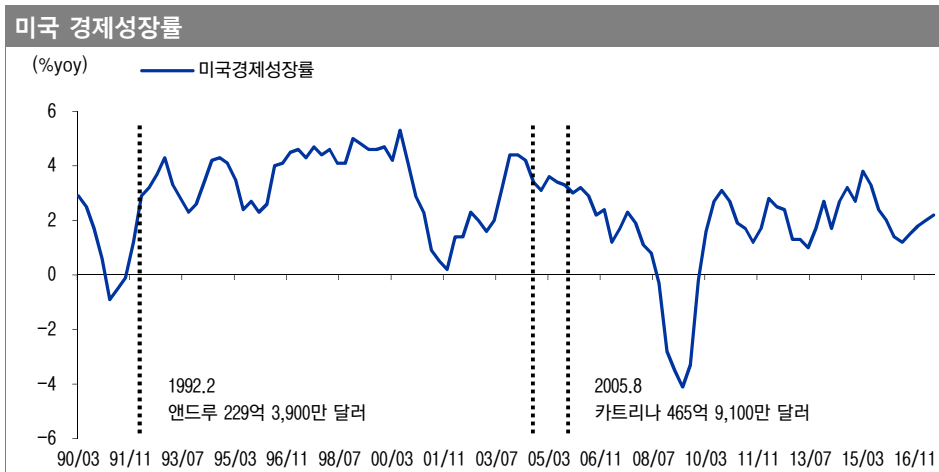
## 허리케인 어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Investment Edge

미국이 태풍 어마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 혹은 이후의 복구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태풍 하비의 경우 보험금 지급액만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허리케인의 영향을 미국 경제 전망에 반영할 지 여부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미국 최악의 허리케인은 2005년 8월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이다. 카트리나는 보험액 기준으로 465억 9,1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던 미국 역대 1위 규모의 허리케인이다. 사실 2004년과 2005년은 카트리나, 프랜시스, 리타, 아이반, 찰리, 윌마 등 역대 10위 내의 허리케인이 6차례나 불어온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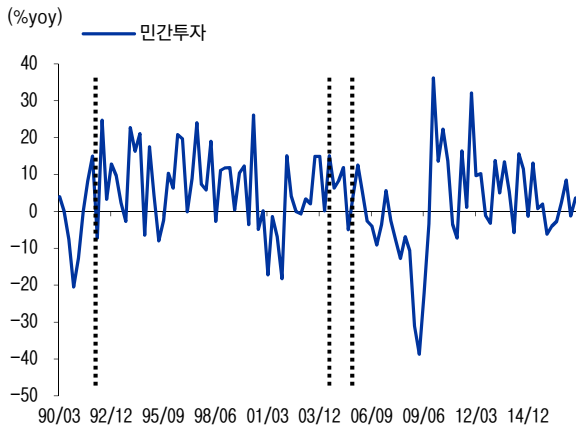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경제성장률과 투자, 정부지출 등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감지해 내기는 어렵다.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로 인한 경제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1992년 있었던 허리케인 앤드루가 다음분기의 경제성장이나 민간투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의 229억이라는 피해액은 2005년의 465억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판단하고 있다. 물론 어마 등이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2,65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최악의 사태에서도 경기의 하락효과가 높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후의 지출과 공공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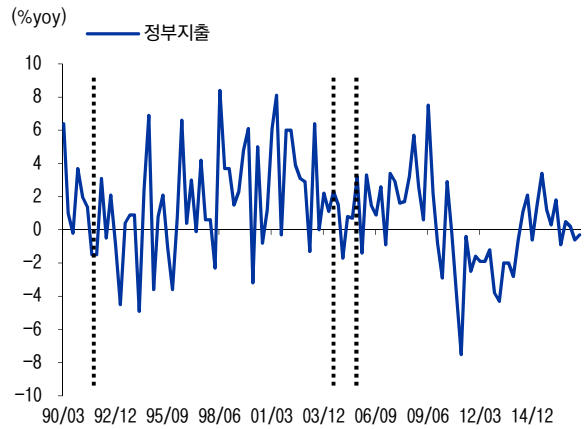
환율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시적 약세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편더멘탈 부분에서는 이번 태풍이 미칠 영향은 심리적 요인 이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후의 복구과정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민간투자나 정부지출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대급 허리케인에 의한 인명피해는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미미하거나 소폭 긍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림1 미국 민간투자 증가율**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정부지출 증가율**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 차량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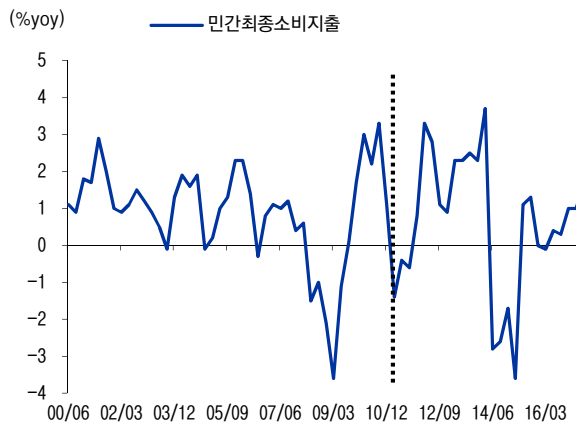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일본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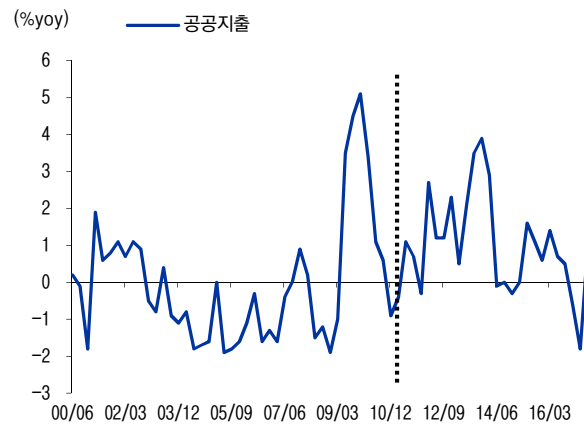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일본 민간최종소비지출**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일본 공공지출**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광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